

국내 기업에서의 Y2k 대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영문* · 이선영**

*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Abstract

I.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Y2k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내 기업에서의 Y2k 대응실태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Y2k 대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본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등의 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총 284개의 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수집 :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수집되었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반송봉투와 함께 1,5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동봉하였다.
- (3)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전 항목에 대해 SPSS/PC+를 사용하여 기초통계량 분석과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의 Y2k 대응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실증분석 결과

3.1 Y2k에 대한 관심도

첫째, 최고관리자의 경우에 Y2k 대응에 관심있거나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사무관리자의 경우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2.8%가 관심있거나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하여 관심도가 최고관리자에 비하여 조금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외부기관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청,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 등에서 Y2k 해결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56.9%가 있다고 응답하여 정부 및 외부기관에서 Y2k 대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Y2k에 대한 인지 및 지식정도

첫째, Y2k에 대한 정보입수유형은 잡지, 회보 등의 정기간행물(3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SI 업체의 솔루션광고(24.6%), 신문(15.3%), TV(9.3%)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것이었고, 기업 내·외부 주관의 교육 또는 모임의 경우도 8.5%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Y2k에 대한 교육은 외부기관에서든 기업 내부주관으로이든 약 20%를 약간 웃돌며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 Y2k 해결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서 교육 지원도가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Y2k에 대해 응답자가 갖는 지식보유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한 정도가 41.7%로 나타났으며,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었다.

3.3 Y2k 미해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본사의 미해결로 인한 어려움은 87.4%가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에, 타사의 미해결로 인한 어려움은 단지 47.1%만이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여 시스템 연계로 인한 타사의 미해결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Y2k 해결방안

Y2k 해결방안으로서 고려하는 것은 시스템 수정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시스템 업그레이드(22.1%)로 나타났다. 또한 Y2k 문제를 기회로 하여 ERP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도 14.4%로 나타났다. 한편, 시스템의 수정을 통하여 Y2k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정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해결(73.3%)이 Y2k 솔루션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변환도구의 도입(2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의 기술적 수정방안은 크게 프로그램 연도의 4자리 확장과 연도수정 없이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도의 4자리 확장이 83.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수정의 대상이 되는 응용프로그램 언어로서는 COBOL(48.6%)이 반수 가까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Y2k 대응단계 및 과정

첫째, Y2k 프로젝트 착수시기는 1998년 상반기 또는 이전에 착수한 업체들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99년 상반기에 착수예정이라는 업체가 38.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Y2k 프로젝트 추진단계를 1단계(영향평가), 2단계(계획수립), 3단계(변환), 4단계(통합테스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현재 3단계(36.6%)에 있는 업체가 가장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직도 1,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업체가 36.6%로써 본격적인 변환작업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4단계, 즉 검증 및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가 26.8%로 나타나 문제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업체가 전체 중 약 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Y2k 프로젝트 소요기간에 대한 인식은 6개월-9개월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1년 이하(78.9%)로 판단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간을 요한다고 생각하는 업체도 21.1%로 나타났다. 넷째, Y2k 해결시간이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하다는 비율이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비율도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Y2k 프로젝트 소요경비는 업체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수치상의 비교가 조금 힘들지만 대략 5천만원 미만이 3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2억 이하가 77.3%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섯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수급방법은 자체해결이 6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외부용역이 32.7%로 조사되었다.

IV. 결 론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적 설문조사 및 분석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Y2k에 대한 대응전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언급한 Y2k 문제의 해결 도구 역시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